

n-Butanol, 가격 상승세 지속!

원료가격 안정세로 ... CFR FE Asia 톤당 570-590달러 형성

n-Butanol 가격이 원료 Propylene 가격상승으로 코스트가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Tosoh, Asahi Kasei 및 삼성종합화학의 에틸렌 크래커 가동 중단으로 프로필렌 수급이 타이트해져 Propylene 가격이 톤당 60달러 상승했기 때문이다.

n-Butanol 수요기업들은 6월 가격을 CFR Taiwan 톤당 56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원료가격이 안정세를 더하자 생산기업들은 6월 공급을 철회하고 시장 동태를 살피고 있는 상태이다.

타이완,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요기업들이 6월 수요물량을 주문하면서 수요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기업을 제외한 수요기업들은 n-Butanol 구매가격으로 CFR East China 톤당 540-550달러, CFR South China 톤당 560-570달러 이상은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필렌 수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감에 따라 투기성 구매를 야기시켜 6월 공급가격은 CFR 톤당 600달러로 거래됐지만 관련기업들에게는 거래가격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지고 있다.

Butyl Acetate 가격은 강세를 더해 CFR China 톤당 640-650달러를 기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04>